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8, pp.217-247  
<https://doi.org/10.29212/mh.2023..128.2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6·25전쟁 초기 전쟁 전략의 변화와 군수지원 체제의 구축\*

이상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목 차
1. 서론
  2. 6·25전쟁의 미군 참전결정과 부산기지사령부의 창설
  3. 낙동강방어선 구축과 부산군수사령부로의 전환
  4. 부산군수사령부의 구조와 운영
  5. 결론

**초 록** 부산군수사령부의 역사는 초기 6·25전쟁의 성격을 결정  
한 낙동강방어선 전투와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을 이해할 단초를 제  
공한다. 즉 부산군수기지사령부에서 부산군수사령부로의 전환은 작  
전 변경에 따른 사령부의 구조 변화이다. 따라서 부산군수사령부의  
운영과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를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1950년 7월 13일 예상외로 빠른 북한군의 남진과 미 제24사단의 대전지역의 참패가 맥아더로 하여금 전술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즉 미 제1기병사단을 활용하여 인천에 상륙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려는 맥아더의 전쟁 초기 구상인 블루하츠(Blue-hearts) 구상이 좌절되었다. 이는 미 제24사단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주한미군사령부를 지원하는 소규모의 부산기지사령부의 역할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그때까지 지휘 및 지원을 담당했던 기지사령부를 군수사령부로 개편하게 되었고, 부산기지사령부는 부산군수사령부로 변경되었다.

부산군수사령부는 B형 군수사령부로 편성되었다. 부산군수사령부는 또한 대량 피난민 처리, 전쟁포로 수용 및 보급, 그리고 마산, 울산, 포항 및 군산항과 같은 보조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고, 1950년 9월 중순에는 서해안에 있는 제3군수사령부에 대한 감독과 한국의 원산에 있는 미 제10군단에 대한 보급임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

1950년 9월 19일 부산군수사령부는 전투부대의 증가에 따른 군수 지원의 책임이 증가됨에 따라 C형의 군수부대인 제2군수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주제어** : 군수지원, 부산군수기지사령부, 부산군수사령부, 블루하츠 작전, 캠프 하야리아, 제2군수사령부, 제3군수사령부

(원고투고일 : 2023. 7. 6, 심사수정일 : 2023. 8. 19, 게재확정일 : 2023. 8. 29.)

## 1. 서론

현재까지 6·25전쟁 연구의 흐름은 국제적 관계의 해명부터 전쟁 내부의 역사적 경향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쟁의 기원, 발발, 전개과정, 영향 등 전반적 분야에서 괄목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었다.<sup>1)</sup>

최근에 들어와 6·25전쟁의 미시사적 접근의 유행으로 인해 개별사건의 분석 및 인물사, 구술사 등의 연구 성과도 다양하게

---

\* 본 논문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 논문 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1;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Vol. III - The Korean War*, Historical Division, Joint Secretariat, Joint Chiefs of Staff, 1978; 오코노기 마사오 · 현대사연구실 역, 『한국전쟁-미국의 개입과정』, 청계연구소, 1986; Clay Blair, *The Forgotten War-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Doubleday, 1987;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김철범, 『한국전쟁과 미국』, 평민사, 1995;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II, 나남출판, 1996;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두레, 1998; 와다 하루끼 ·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박명림, 『한국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김학준, 『개정증보판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 박영사, 2003;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 함께, 2005; 김경일 지음 · 홍면기 옮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논형, 2005;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6; 선즈하,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선인, 2014;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김보영,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라종일, 『세계와 한국전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9; 이상호, 『한국전쟁: 전쟁을 불러온 것들, 전쟁이 불러온 것들』, 섬앤섬, 2020

이루어졌다.<sup>2)</sup> 하지만 유사한 연구 주제 설정으로 인해 6·25전쟁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주목할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연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은 전쟁 수행과 관련한 군수지원 문제이다. 그동안 주로 전투사 위주와 작전계획 중심의 연구 방향이 전쟁 수행과 관련한 군수지원 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이어져왔다.

새로이 발굴되는 1차 사료(Primary Sources)에 따라 포로신문조서, 노획문서, 동원관련 주제 등에 있어 독특한 연구 성과물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쟁의 중요한 동력원인 군수지원 문제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또한 그 범위를 연구사적 시도라는 의미에서 전쟁 초기 전쟁전략의 변화로 인한 군수지원 체제가 변화된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산기지사령부(Pusan Base Command)에서 부산군수사령부(Pusan Logistical Command)로의 변화이다.

6·25전쟁기 군수지원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연구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우선 공간사 위주의 선행 연구가 있었다. 1955년 육군본부의 『6·25사변 후방전사』 2권이 선구자적 연구 보고서이다. 이 외에도 1994년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한국전쟁과 전투근무지원』과 1997년, 1998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 『UN군지원사』 등이 있다.<sup>3)</sup> 이들 연구는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2)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돌베개, 2010;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정준모,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화가들이 기록한 6·25』, 마로니에북스, 2015; 정연선, 『잊혀진 전쟁의 기억: 미국 소설로 읽는 한국전쟁』, 문예출판사, 2019; 권현익, 『전쟁과 가족: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 창비, 2020; 유차영, 『대중가요 6·25전쟁』, 행복에너지, 2022.

3)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육군본부, 1955; 육군본부, 『한국전쟁과 전투근무

작성되었으나, 대부분이 미 육군군사연구소와 『후방전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어 연구사적으로 주목할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일부 학위논문이 있으나, 대부분이 군수지원의 개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군수지원체제의 구체적 양상은 밝혀내지 못했다.<sup>4)</sup>

국외 연구에서는 6·25전쟁의 군수지원사를 6·25전쟁사의 한 부분으로 주목해 왔다. 먼저 국내 학자에 의해 여러 번 중복 번역되어 소개된 미 육군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 웨스트오버(John G. Westover)의 『Combat Support in Korea』이다. 다음으로는 고프(Terrence J. Gough)가 1987년에 저술한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A Research Approach』이다. 두 연구는 군수지원의 사례와 인력 동원에 관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6·25전쟁기 군수지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군의 해상물류시스템 구축과정을 분석한 연구와 유엔군 군수지원 체제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나왔다.<sup>5)</sup>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도 앞으로 분석하게 될 부산군수사령부의 이해와 인식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부산군수사령부의 역사는 초기 6·25전쟁의 성격을 결정하는 낙동

지원, 육군본부, 199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 국방군사연구소, 1997;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4) 박동진, 「군수지원의 역사적 고찰 및 발전방향」, 대전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김기준, 「6·25전쟁 분석을 통한 군수지원 발전방안 연구」, 한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김중무, 「한국전쟁에서의 작전적 군수지원에 관한 분석연구」, 국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5) 김윤미, 「한국전쟁기 유엔군 군수사령부 편성과 부산항 -1950년 해상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70집, 2022; 이상호,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 체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이상호,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 체제의 양상」, 『청계사학』 제24집, 2022.

강방어선 전투와 이어지는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즉 부산군수기지사령부에서 부산군수사령부로의 전환은 작전 변경에 따른 사령부의 구조 변화이다.

따라서 6·25전쟁 초기 전쟁 전략의 변화에 따른 군수지원사령부의 변화와 운영 그리고 역할 등을 정리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활용한 1차 자료(Primary Sources)로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와 맥아더기념관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sup>6)</sup>

## 2. 6·25전쟁의 미군 참전결정과 부산기지사령부의 창설

부산항은 한반도 남부 지역의 제1항구로서 해방 이후 미국의 주요 물자 하역항으로 이용되었다. 이미 일제 시대부터 대륙침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항구 도시인 부산이 해방 이후 해외 귀환자의 주요 귀환 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역설적으로 부산항의 확장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일제 말에 이르러서였다. 이는 결국 1950년대 전쟁기 군수지원의 핵심적인 역할로 이어지게 되었다.

부산항은 한반도 동남단 북위 35°06'07", 동경 129°04'02"에

---

6)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FECOM), 1947~1951; MA, RG 9, Collection Messages (Radiograms), 1945~1951.

위치한 한국 제1의 국제항이다. 부산항은 개항과 더불어 본격적인 항만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매립 및 부두공사를 통하여 일제 시대인 1918년에 1기 공사가 끝나면서 120만 톤 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1946년 3, 4 중앙부두가 구축되었다.<sup>7)</sup>

19세기 후반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북항, 영선산착평, 부산진, 남항, 영도, 적기만(赤崎灣) 등의 앞바다를 매축(埋築)<sup>8)</sup>하여 현재의 부산항의 모습을 갖추었다. 여기에 항구와 직접 연결하는 철도공사가 있었다. 부산임항철도주식회사는 1940년 6월 17일 정식 인가되었는데, 부산진역에서 적기만(赤崎灣)에 이르는 철로공사를 착수하였다. 철도부설은 해방되기 이전에 거의 완료되었다.<sup>9)</sup> 일제 말 매축으로 부산항의 각종 항만시설들은 6·25전쟁기 유엔군의 군수물자와 원조물자들이 신속하게 한국정부에 전달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sup>10)</sup>

6·25전쟁 전후 부산의 인구는 매우 급격하게 변동되었다. 1945년 28만 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이루어진 귀환자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1946년 36만 명, 1947년 43만 명, 1948년 50만 명이 되었다. 1949년 통계에 따르면 47만 명으로 약간 인구가 줄었지만, 이후 전쟁의 영향으로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1950년은 전쟁의 영향으로 활용할 통계수치가 없지만 1951년에는 84만 명, 1952년에는 85만 명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sup>11)</sup> 6·25전쟁 중 부산이 임시수도로서 정치·경제·사회

7)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백서』, 1991, 16쪽; 송계의, 「부산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항만개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16호,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0, 198쪽.

8) 매축(埋築)은 바닷가나 강가를 매워서 물으로 만드는 일을 뜻한다.

9) 김 승,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제29호,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13, 19~21쪽.

10) 김 승, 같은 논문, 1~2쪽.

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병참기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인구의 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6·25전쟁기인 1949~1953년 사이에 부산 인구는 75.8%가 증가하였다.<sup>12)</sup>

바로 이러한 부산항의 입지조건이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군의 군수지원 관련 시설이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부산기지사령부와 그 후신인 부산군수사령부 이후 제2군수사령부와 한국병참지대(KcomZ)로 이어지는 군수 관련 사령부의 주둔지가 현재 부산시민공원으로 바뀐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이다.<sup>13)</sup> 캠프 하야리아는 2차 대전 후 일본의 점령 지역을 미국이 그대로 접수하여 자국의 ‘전진 기지’정책의 일환으로 극동지역에 설치한 미군 군사 거점이다.<sup>14)</sup>

한국군은 개전 초기 불과 며칠 만에 군사물자 및 장비 대부분을 상실했다. 이중 상당량은 북한군이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군수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였다.<sup>15)</sup>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된 6월 말에 군수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

11) 부산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3권, 1991, 1322쪽.

12) 송계의, 「부산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항만개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16호,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0, 154~155쪽.

13) 하야리아(Hialeah)란 명칭은 인디언 말로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뜻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하야리아 경마장에서 따온 명칭으로 일제시기 경마장의 모습을 띤 범전동 일대부지의 모습을 보고 명칭을 지었다. 임시수도기념관, 『낮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임시수도기념관, 2015, 19쪽;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부산시민공원역사관, 2014), 98쪽. “Memorandum No. 43 - Pusan Logistical Command Bus System” (1950. 9. 1),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 Numbered Memorandums.

14) 유 현, 「리틀아메리카에서 부산시민공원으로 -캠프 하야리아를 둘러싼 기억과 시선들-」, 『항도부산』 제38호,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19.

15) “Message from DA to CINCFE” (1950. 6. 27), MacArthur Archives,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FECOM), 1947~1951.



루어졌다. 즉 극동군사령관은 미 제8군사령관에게 일단 미 제8군 보유물자를 가지고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보급 요청에 따라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군수지원은 24만 발의 카빈 소총 탄약, 1만 2천 발의 2.36인치 로켓포탄, 1만 발의 105밀리 포탄이었다. 이 군수지원은 6월 27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항한 키슬리(George D. Keathley)호가 7월 1일 부산항에 도착하여 시작되었다.<sup>16)</sup>

1950년 6월 27일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한국 내 미군의 모든 군사 활동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6월 30일 극동군사령관은 미 지상군을 한국에 투입시키는 권한을 대통령과 육군부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리고 극동해군과 극동공군의 배치에 대한 제한도 해제하였다.<sup>17)</sup>

맥아더는 전선시찰 결과보고와 함께 “현 전선을 고수하고 최근의 실지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미 지상군의 한국전선 투입으로만 보장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1개 연대전투단을 즉각 투입하고, 그 뒤에 있을 조기 반격을 위해서는 주일 미군 중의 2개 사단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건의하여 승인받았다.<sup>18)</sup>

7월 2일 맥아더는 조이(Turner C. Joy) 제독의 조언을 받아 해병대 항공 부대의 지원을 받는 미 해병 1개 연대전투단의 극동 파견을 워싱턴에 건의하였으며, 7월 3일 미 합동참모본부는

16)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2, Chapter IV”,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pp. 1~2.

17) William J. Flanagan, Harry L. Mayfield, Jr, “Korean War Logistics, The First One Hundred Days, 25 June to 2 October 1950”, Study Project AD-A157 032, U.S. Army War College Carlisle Barracks, Pennsylvania, 1985, p. 7; “Message from DA to CINCPAC” (1950. 6. 28), MacArthur Archives,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FECOM), 1947~1951.

18) James, F. Schnabel, *op.cit.*, p. 78.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 계획에 더하여 대체적인 작전 개념이 마련되었다. 현 전선 남쪽에서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으로 반격작전을 감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미 해병 1개 연대전투단 및 미 제1기병사단을 돌격 상륙부대로 삼아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블루하츠(Blue-Hearts)라는 작전명이 부여되었다.<sup>19)</sup>

1950년 7월 1일 일본의 이타즈케(板付)를 출발하여 당일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한 부대는 바로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1대대를 기간으로 한 스미스특수임무대대(Task Force Smith)였다.<sup>20)</sup>

1950년 7월 2일 부산근방의 임시활주로에 미 제24사단의 2개 중대가 도착했다. 전방사령부(Advanced Command, ADCOM) 수송 장교인 헌트(Lewis A. Hunt) 중령은 이미 6월 30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항구운영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전방사령부는 한국 트럭을 이용하여 이 스미스특수임무대대(Task Force Smith) 병력들을 임시활주로에서 부산역으로 이송했다.<sup>21)</sup> 미 제24사단의 병력들이 계속해서 증원되자 수많은 군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력과 장비 부족이 초기 작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헌트 중령에게 가용한 미국 인원은 대략 80명의 주한미군사고문단 장교들과 민간인들이었다. 이 인원들은 미 제24사단병력과 한국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아 7월 1일~7일까지 52척의 선박 하역을 실시하고 1만 565명의 병력, 1천 372대의 차량, 7천 6백 톤의 탄약, 2천 7백 톤의 일반 화물 및 5백 톤의 기타 보급품을 전투지역으로 보냈다.<sup>22)</sup>

1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인천상륙작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15~16쪽.

20) Roy Appleman, *op.cit.*, pp. 60~62.

21) "Pusan Logistical Command - Monthly Activities Report",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6·25전쟁 기간 동안 미군은 한국군 및 유엔군의 군수지원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이에 미 제8군은 1950년 7월 4일 한국에 있는 모든 전투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사령부 예하에 부산기지사령부를 설치하였다.<sup>23)</sup>

1950년 7월 1일 미 제8군사령관은 서신명령 7-217호로 부산에 부산기지사령부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사령부의 기본 임무는 군수지원과 지원부대를 한국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1950년 7월 4일 가빈(Crump Garvin) 준장과 그의 참모들이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기지사령부(Pusan Base Command)를 설립했다.<sup>24)</sup>

보통 기지사령부(Base Command)는 작전지휘와 군수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즉 초기 부산기지사령부의 설치 는 맥아더의 2개 사단을 동원한 북한군의 저지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미 제24사단을 대전 북방으로 배치하여 북한군을 방어하고, 미 제1기병사단을 인천에 상륙시켜 북상하는 미 제24사단과 함께 적을 격멸하는 블루하츠(Blue Hearts)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수사령부(Logistical Command)보다는 기지사령부의 형태로 북한군의 남침을 막아내려고 하였다.

22)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 II",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p. 6.

23) 한 연구에서는 부산기지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군수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김윤미, 「한국전쟁기 유엔군 군수사령부 편성과 부산항」, 『동북아문화연구』 제7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2, 27쪽.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부산기지사령부는 7월 1일에 설치되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유엔군사령부의 구성이 결의된 것은 7월 7일이고,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가 임명된 것은 7월 8일이었다.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 II",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p. 7.

24) "GHQ, Far East Command General Order Number 11" (1950. 7. 13),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1950년 7월 4일 내쉬(Persy L. Nash) 중령을 참모장으로 참모부가 구성되었다.<sup>25)</sup> 이어서 7월 10일 부산기지사령부의 각 참모 조직을 구성했다. 요스트(Harvey Y. Yost) 소령을 인사참모, 굿릭(Carl H. Goodrick) 소령을 정보참모, 캘훈 주니어(Charles H. Calhoun, Jr.) 소령을 작전참모로 각각 임명했다. 1950년 7월 17일에 맥알리스트터(Martin D. McAllister) 대령을 군수참모로 임명했다. 결국 기지사령부는 대대~연대 규모의 병력수를 가진 연대급 규모의 부대였다. 이는 전쟁 초기 2개 사단을 통해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고 반격할 수 있다는 맥아더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부산기지사령부의 최초 임무는 미 제24사단의 지원으로 인원도 미 제24사단에서 차출되었다. 특히 이들은 여러 부대에서 뽑혔고, 실재 병원에서 막 퇴원한 환자들도 소집하였다. 또한 긴급편성으로 인해 군수분야 훈련의 결여로 효율성이 떨어졌다.<sup>26)</sup>

따라서 군수지원은 미 제8군이 맡고, 부산에는 전방지역에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기지사령부만을 설치할 것을 고려했다. 결국 부산기지사령부는 미 제8군으로부터 보급품을 접수하여 전투부대에 불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당시 기록에 따르면 급박한 전시상황으로 인해 행정문서를 작성할 시간조차 없어 당시 보급관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서류정리와 보급상황의 기록은 부산군수사령부가 설치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sup>27)</sup>

25) "Pusan Logistical Command General Order Number 2" (1950. 7. 13),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26)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I, Chapter II",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p. 7.

27)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2, Chapter IV", NARA, RG 550,

하지만 이후 상황 전개에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군의 전력은 상당한 것이었고, 미 극동군사령부는 2개 사단이 아닌 일 본점령군인 미 제8군 산하 4개 사단과 미 본토에서 추가 사단을 제공받아야 할 정도로 전쟁 전략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소규모의 지원을 담당할 기지사령부를 일정 규모의 군수사령부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3. 낙동강방어선 구축과 부산군수사령부로의 전환

7월 6일 극동군사령관은 제8군사령관에게 그가 한국 주둔 미 군부대장으로 임명될 것이며 미 제8군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국 전투지역에 대한 작전통제를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7월 5일과 6일에 걸쳐 오산 죽미령에 배치된 미 제24사단의 스미스특수임무대대가 북한군에 의해 패퇴하고 이어 평택전투에서도 패배하자, 극동군사령부의 전쟁 수행계획이 변경되었다. 대규모의 지상군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다. 7월 4일 극동군사령부 회의실에서 토의되어 7월 22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블루하츠(Blue Hearts) 작전이 7월 10일 취소되었다.<sup>28)</sup> 작전의 공식 취소는 7월 12일이었으나 이미 7월 8~10일 미 제24사단이 천안 전투와 전의전투에서 패하자 작전 계획의 변경은 예상된 것이었다.

이러한 작전 변경에 따라 7월 8일 맥아더로부터 주한유엔군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부여받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7월

---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pp. 10~11.

28)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p. 140.

11일 부산기지사령부를 미 제8군 예하인 편제표상 B형의 군수부대인 부산군수사령부(Pusan Logistical Command)로 개편을 지시하였다. B형의 군수사령부는 군단급 규모의 병력에 대한 병참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였다.

주한미육군은 7월 12일에 해체되었고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그 다음날 한반도에 있는 전 미군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맡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또한 전 한국군 지상군 부대에 대한 지휘권도 맡게 되었다.

미 제8군은 한국에서의 지상 작전 수행 임무를 맡게 되었다. 미 제8군은 또한 자체 군수지원, 보급품 조달, 수송, 항구운영 및 일본 점령 통치에 대한 책임도 맡게 되었다. 워커 장군은 부대를 사실상 두 개의 사령부로 편성하였다. 한국의 미 제8군부대는 주한 미제8군(Eighth United States Army in Korea: EUSAK)으로 지정되었고 일본에 주둔하던 부대는 미 제8군(Eighth Army)으로 명명되었다.

한국에서의 사령부 조직 재편성 계획수립 과정에서 극동군사령부 본부/근무단은 부산기지사령부를 편성 및 장비표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사령부로 재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쟁에 대한 전략이 소규모 봉쇄와 반격에서 대규모 병력의 투입에 따른 저지 및 반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군수지원 부대의 개편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군수사령부는 야전 부대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부대에 대하여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군수사령부는 (1) 병참지대의 주요 사령부나 부대로서 병참지역 관구(Communication Zone Section)의 임무를 수행 혹은 대규모 기지(Large Base), 구역(District) 또는 지역(Area)과 같은 지구의 예하구역을 운영하거나 (2) 세부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지역 내의 병참지대나 보급근무를 운영하거나 (3) 재난이나 군사조치로 인해 민간 수단

이 부족한 지역을 관리하거나 재건할 수 있었다.

군수사령부의 유형과 병력은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상이하였다.<sup>29)</sup>

- (1) 3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전투부대나 증강된 사단에 병력과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A형(지원병력 11,000~18,000명)
- (2) 10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전투부대나 증강된 군단에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B형(지원병력 35,000~60,000명)
- (3) 40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전투부대나 야전군에게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C형(지원병력 75,000~150,000명)

미 제8군 예하 사령부인 부산군수사령부는 한국에 있는 전투부대들로부터 군수품을 신청 받아 일본의 미 제8군 후방사령부에 신청하고 일본의 후방사령부가 공급해 주는 보급품을 수령·보관·지급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6·25전쟁에서 군수지원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미 제8군은 부산군수사령부를 통하여 예하 부대 및 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 보급품 조달, 수송, 항구운영, 보관, 분배임무를 맡았다.

7월 13일 이에 따라 부산기지사령부는 부산군수사령부(Pusan Logistical Command)로 변경되었다. 부산군수사령부는 1950년 7월 20일부 편성 및 장비표 110-100-1을 기준으로 B형 군수사령부로 편성된 잠정부대였다.<sup>30)</sup> 1950년 7월 13일에 창설된 부

29)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 II",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pp. 21~22; William J. Flanagan, Harry L. Mayfield, Jr, "Korean War Logistics, The First One Hundred Days, 25 June to 2 October 1950", Study Project AD-A157 032, U.S. Army War College Carlisle Barracks, Pennsylvania, 1985, p. 11.

30) "Pusan Logistical Command - Monthly Activities Report",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산군수사령부는 제한된 가용인원을 활용하여 일반참모 및 특별참모진으로 편성되었다.

부산군수사령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부산항 운영으로서 초기에는 가용 인원의 상당수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그 운영이 제한되었다. 8월에 제7수송중형항만대(7th Transportation Medium Port)와 그 배속<sup>31)</sup> 부대가 도착함으로써 항구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부산군수사령부는 B형 군수사령부로 편성되었다. 부산군수사령부는 또한 대량 피난민 처리, 전쟁포로 수용 및 보급, 그리고 마산, 울산, 포항 및 군산항과 같은 보조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고, 1950년 9월 중순에는 서해안에 있는 제3군수사령부에 대한 감독과 한국의 동해안인 원산에 있는 미 제10군단에 대한 보급임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

1950년 9월 19일 부산군수사령부는 전투부대의 증가에 따른 군수지원의 책임이 증가됨에 따라 C형의 군수부대인 제2군수사령부로 개칭되었다.<sup>32)</sup> 이제 기존의 군단급 규모의 병참지원으로는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으로 편성된 유엔군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40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야전군 지원규모인 C형의 군수부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원병력 15만명 이내의 이 군수사령부는 군(Army) 급의 병력에 군수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런 유형의 군수사령부가 전투작전에 최초로 적용된 것은 한국전쟁에서였다.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일부로서 전투지역에서 활동하였다.

31) 배속(attachment)과 예속(assignment)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배속은 한 편성체에 부대나 인원을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임시적인 것을 뜻한다. 반면에 예속은 한 편성체에 비교적 영구적인 부대 또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참조.

32)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 II",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pp. 21~22.



#### 4. 부산군수사령부의 구조와 운영

1950년 7월 13일 주한유엔군 부대를 위한 군수지원을 위해 임시 부산군수사령부(Pusan Logistical Command(Provisional))가 창설되었다.<sup>33)</sup> 부산군수사령부는 부산기지사령부를 그대로 이어 받은 조직이었다.<sup>34)</sup> 부산군수사령부(임시)는 7월 13일 부산 근방에 최초의 포로수용소를 설치했다.

1950년 7월 20일에는 7월 16일자 미8군사령부 일반명령 157호에 의해 편제를 재편성하여 사령부를 정식으로 부산군수사령부로 개편하였다. 부산군수사령부의 사령부 중대원들은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로 알려진 곳에 사령부 건물을 설치했다. 부산기지사령부의 구성원들을 그대로 인계한 부산군수사령부였지만 당시는 일반참모부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

7월 13일에는 요스트(Harvey Y. Yost) 소령이 2명의 장교와 1명의 부사관, 6명의 사병으로 G-1(인사) 조직을 구성했다. 7월 15일에는 G-1국으로부터 분리하여 G-3(작전) 조직을 만들었다. 인원 부족으로 각 부서의 요원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씩 근무를 해야 했다.

G-2(정보)는 7월 13일 굿릭(Carl H. Goodrick) 소령에 의해

33) "Pusan Logistical Command General Order Number 1 - Assumption of Command" (1950. 7. 13),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34) "Pusan Logistical Command Monthly Activities Report - July 1950",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Monthly Activities Report.

조직되었다.<sup>35)</sup> 이 조직의 주요 임무는 상황도를 생산하고, 적 상황과 관련 활동 정보를 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찰과 특무대의 효과적인 정보 제공에 의해 방첩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몇 명의 간첩들이 CIC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다. G-2는 1명의 장교와 1명의 사병으로 구성되었다.

G-3는 7월 10일 칼훈 주니어(Charles H. Calhoun Jr.) 소령에 의해 조직되었다.<sup>36)</sup> 작전참모부는 3명의 장교와 1명의 사병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업무는 부산항을 통한 부대 이동을 통제하고, 항구 주변의 방어를 위한 준비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부산항의 방어준비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 작전계획 1호로 준비되었다. 다수의 병력이 유입되자 방어계획은 수정되어 7월 31일 작전계획 2호로 변경되었다.<sup>37)</sup> 1950년 7월 17일에 맥알리스터(Martin D. McAllister) 대령을 G-4(군수) 참모로 임명했다.<sup>38)</sup>

현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7월에 현지노동국(Indigenous Labor Section)이 국무부로부터 파견된 해외근무원인 라이너(H. Reiner)에 의해 조직되었다. 1950년 7월 31일자 부산군수 사령부에는 약 5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sup>39)</sup>

35) "Pusan Logistical Command General Order Number 2" (1950. 7. 13),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36) "Pusan Logistical Command General Order Number 2" (1950. 7. 13),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37) "Pusan Logistical Command Operational Plan Number 2" (1950. 7. 31),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38) "Pusan Logistical Command General Order Number 2" (1950. 7. 13),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39) "Pusan Logistical Command Monthly Activities Report - July 1950",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Monthly Activities Report, p. 2.

당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고용인에 대해 한 달 노동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sup>40)</sup> 월급 상한으로 하우스보이나 다림질, 세탁 등에 종사하는 인원은 한 달에 1만 5천 원을 넘을 수 없었고, 한국인 이발사는 3만원을 넘을 수 없었다.<sup>41)</sup> 7월 1일자 한국인 고용인을 위한 월급 규정에 따르면, 보수 규정은 전문가(Professional), 숙련자(Skilled), 중숙련자(Semi-Skilled), 미숙련자(Unskilled)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숙련도를 3등급으로 차등하여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전문가는 Class Ⅲ는 8만원, Class Ⅱ는 6만 8천원, Class Ⅰ은 5만 5천원을 넘을 수 없었다.<sup>42)</sup>

한편 7월 26일자 미8군사령부 행정명령 24-A에 의해 7월 31일 부산에 포로수용소가 설립되었다.<sup>43)</sup> 7월 31일에 총 39명의 포로가 수용되었다.

40) "Employment of Indigenous Korean Labor at all Army Installations in Korea" (1950. 7. 19),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 Numbered Memorandums.

41) "Amendment to Labor Regulations Concerning the Employment of Indigenous Korean Labor at all Army Installations in Korea" (1950. 7. 26),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 Numbered Memorandums.

42) "Pay Scale for Indigenous Employees" (1950. 7. 1),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 Numbered Memorandums.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800원이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인 한국인 고용인도 한 달 월급이 45달러를 넘지 않았다. "Memorandum No. 29 - Currency Procedure" (1950. 8. 22),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 Numbered Memorandums.

43) "Pusan Logistical Command General Order Number 4" (1950. 7. 26),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부산군수사령부는 G-1부터 G-4까지의 일반참모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부서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수송국(Transportation Section)은 초기 미군의 병력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초의 미군 파견부대인 스미스특임대대의 전방 전개는 바로 이 수송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의미는 매우 큰 것이었다.

먼저 수송국이 헛트(Lewis A. Hunt) 중령을 국장으로 6월 30일 전방지휘본부(Advanced Command Base)하에 조직되었다. 최초의 한국 도착 부대는 제24사단 21연대의 2개 중대였다. 이 2개 중대는 비행기로 부산에 도착하여 트럭을 이용 임시활주로에서 부산역으로 그리고 기차를 통해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병력 이동의 임무를 맡은 것이 수송국이었다. 수송국은 한국경찰의 도움을 받아 150여 대의 민간 트럭을 징발하여 임시활주로에서 부산역까지 병력을 이동할 수 있었다. 7월 2일에는 제8057항구중대(8057th Port Company)와 7월 8일에는 제584수송트럭대대(584th Transportation Truck Battalion)의 한 개 소대가, 7월 9일에는 제8059수송군사철도대(8059th Transportation Military Railway Service)가 도착하여 수송국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수송국의 철도과(Rail Division)는 모스(R. P. Moss) 대령을 과장으로 7월 12일 조직되었다. 제8059수송군사철도대가 철도과로 배속되었다. 수송국의 철도과는 한국국영철도의 운영과 운행을 통제했다.<sup>44)</sup>

해상과(Water Division)는 7월 2일부터 9일까지 항구 운영을 통제했다. 1950년 7월 10일에서야 튜스(Marlow O. Tubbs)

44) "Memorandum No. 1" (1950. 7. 18),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 Numbered Memorandums.

중령이 이끄는 제8057항구중대가 이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게 되었다.

7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309,314톤이 항구에서 하역되어 일일 평균 10,666톤에 달하는 화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중장비의 부족이 부대의 중장비를 하역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제8057항구중대가 활약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sup>45)</sup>

- 선박입항 - 230척
- 선박출항 - 214척
- 병력출항 - 3,251명의 환자를 포함하여 3,444명
- 병력입항 - 42,581명
- 물자하역 - 184,460톤
- 차량하선 - 9,454대

육로과(Highway Division)는 7월 8일에 설치되어 장교 1명이 임명되었다. 7월 9일 제541트럭중대(541st Truck Company)의 제1소대가 13대의 2.5톤 트럭과 함께 도착했다. 본대인 제70트럭대대(70th Truck Battalion)가 14일에 도착하여 한국인 운전사들을 조직하여 훈련시켰다.

이어서 7월 8일에는 제192병기대대(192d Ordnance Battalion)와 헌병중대가 도착, 7월 11일에는 제8056병참대대(8056th Quartermaster Battalion)가 도착하는 등 후속부대가 차례차례 한국에 도착하였다.<sup>46)</sup> 티만(Edward E. Tiemann) 대위가 이끄는 화학중대는

45) "Pusan Logistical Command Monthly Activities Report - July 1950",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Monthly Activities Report, pp. 9~10.

46) "Pusan Logistical Command Monthly Activities Report - July 1950",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Monthly Activities Report, pp. 11~12.

7월 17일에 요코하마로부터 배치되었다. 이외에도 특별참모부인 군사경찰(Provost Marshal)이 7월 8일, 군종장교(Chaplain) 3명이 7월 12~14일에 각각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의무부대(Surgeon)가 7월 6일, 법무(Judge Advocate)가 7월 8일 부산에 도착하는 등 사령부로서의 기능이 구비되기 시작했다.<sup>47)</sup>

8월에 들어와서 부산군수사령부는 병력과 장비의 증강으로 인해 그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 부산항으로의 전투부대의 대규모 입항은 그 업무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었다.<sup>48)</sup> 특히 군사적 문제와 더불어 부산군수사령부의 큰 업무 가운데 하나는 부산지역으로 꾸준한 피난민의 유입이었다. 이들에 대한 구호와 식량, 의료 등이 주요한 업무로 대두되었다. 피난민의 규모가 약 15만 명에 달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sup>49)</sup>

군사 및 민사업무를 위해 부산군수사령부에서는 현지 한국인들을 다수 고용하였다. 이를 위해 사령부에서는 특별참모부서로 현지노동국(Indigenous labor section)을 설립했다. 8월에 들어와 부산군수사령부의 병력 수는 5,200명에서 8,142명으로 급증하였다.

부산군수사령부의 업무 가운데 카투사에 대한 군수지원과 일본으로의 후송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제8069보충대대(8069th Replacement Battalion)는 8,300명에 달하는 카투사의 군복, 장비 등을 보급하고, 이들을 일본으로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8월 군수사령부의 북한군 포로 수는 1,899명으로 한국군 요원

47) "Pusan Logistical Command Monthly Activities Report - July 1950",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Monthly Activities Report, pp. 12~19.

48) "Pusan Logistical Command Monthly Activities Report - August 1950",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Monthly Activities Report.

49) "Pusan Logistical Command Monthly Activities Report - August 1950",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Monthly Activities Report, p. 1.

과 미군 요원에 의해 제1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sup>50)</sup>

부산군수사령부의 또 다른 업무 가운데 하나는 부산 지역에 대한 군사적 방어체계의 구축이었다. 부산군수사령부의 작전참모부는 소화기, 대포, 박격포, 대전차무기 등으로 방어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방공훈련을 위해 처음에는 23시를 소등 및 통행 금지 시간으로 설정했으나 8월 중순 이후에는 21시로 변경하였다.<sup>51)</sup> 8월에 부산군수사령부의 작전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52)</sup>

부산항 하역 물자 594,974톤  
 부산으로 수송한 환자 수 5,450명  
 전방으로 향한 열차 수 317량  
 전방으로 향한 적재 차량 4,918대  
 전방으로 향한 물자 108,064톤  
 전방으로 향한 병력 수 42,187명

8월 1일 워커가 이끄는 미 제8군은 지연작전을 전개하여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때부터 부산군수사령부는 낙동강방어선 전투를 지원하는 미 제8군의 군수지원부대 역할을 담당하였다.<sup>53)</sup>

특수물자지원으로는 화학단, 공병단, 병참단, 통신단의 활동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화학단(Cheical Section)이 1950년

50) "Pusan Logistical Command Monthly Activities Report - August 1950",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Monthly Activities Report, pp. 1~2.

51) "Memorandum No. 13 - Leaves Passes & Curfew" (1950. 8. 4),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 Numbered Memorandums.

52) "Operating Statistics - August 1950",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 - 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53) 이상호,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99~103쪽.

7월 25일 편성되어 운영되었다. 화학단의 운영과 함께 방독면의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북한군이 비소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첩보에 의한 것이었다.<sup>54)</sup>

공병단의 주요 임무로는 전기 및 수도시설 지원이 있는데 1950년 8월 15일 전력바지선인 Jacona호가 도착하여 지역의 전력 공급을 시작하였다. 7월 11일에는 부산기지사령부 예하에 병참단(Quartermaster Section)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취사과 견대 세탁소대, 제빵소대, 군화수선반 등이 있었다. 이 병참단에서 중요한 시설은 바로 전사자를 처리하는 영현업무였다. 당시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제108영현등록소대(Quartermaster Graves Registration Platoon)는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의 유일한 영현 등록부대였다. 영현등록소대는 바로 부산기지사령부를 지원하였고, 미 제24사단 묘지를 대구에 개장했다. 부산군수사령부 창설 이후인 7월 14일에는 미군 묘지를 부산에 개장하였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은 통신단의 운영이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통신시설은 매우 제한된 상태로 육상 통신 회선 1개, 무선전화 회선 1개, 무선텔레타이프 회선 1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3개 회선은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7월 이후에는 무선 텔레타이프 회선을 대전에서 도쿄로 개통하였고,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저 케이블 복구 등을 완료했다.

7월부터 9월 19일까지 전쟁 초기 전투에서 주한미군과 미 제8군을 지원하던 부산군수사령부는 9월 19일자로 해체되고, 규모가 더욱 큰 C형의 군수사령부인 제2군수사령부로 재편되었다. 미 제10군단을 지원하던 제3군수사령부는 중공군 참전 이후 유

54)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4, Chapter VII",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Entry A1. 1, pp. 1~2.



엔군이 전면 퇴각하자 제2군수사령부에 흡수되었고, 제2군수사령부는 1952년 한국병참지대(KcomZ)가 창설되어 전투 병력과 분리될 때까지 유엔군의 군수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미군은 전쟁이 만일 미군 2개 사단 정도만 투입한다면 대전-금강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반격하여 그들을 패퇴시킬 것으로 낙관하였다. 따라서 실제 전선에 지원하는 군수사령부를 설치하지 않고 기지사령부를 운영했다. 하지만 북한군의 병력과 전력이 만만치 않고, 또한 미 제 24사단이 조치원 및 공주 전투를 포함하여 금강선에서 밀리게 되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는 전쟁전략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기지사령부를 바로 군수사령부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6·25전쟁에서 부산군수사령부의 운영은 고작 2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의 운영원칙은 이후의 제2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로 이어지는 6·25전쟁 기 군수지원의 한 원형(prototype)이 되었다.

## 5. 결 론

6·25전쟁기간 중 부산항이 이 시기에 군수물자의 도입과 외국원조의 도입항으로써 그 기능이 크게 증대되었다.<sup>55)</sup> 이러한 부산항의 하역능력으로 전쟁 초기부터 부산에는 군수기지사령부, 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가 설치되어 전쟁에서 군수지원을 담당했다.

55) 송계의, 「부산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항만개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16호,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0, 199쪽.

전쟁 초기 군수지원의 변경은 초기 6·25전쟁의 성격을 결정하는 낙동강방어선 전투와 이어지는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즉 부산기지사령부에서 부산군수사령부로 전환은 전쟁 전략의 변경에 따른 사령부의 구조 변화이다.

7월 4일 부산기지사령부를 설치한 미군은 초기에 2개 사단을 동원하여 북한군을 저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블루하츠 작전이다. 하지만 죽미령과 평택에서 스미스특임대대가 패하고, 이어 대전 북방에서 미 제24사단이 패배하자 기지사령부로 유지하려던 부산의 군수 관련 기구를 대규모 작전에 맞는 군수사령부로 개편하게 되었다.

부산군수사령부는 한국에 있는 전투부대들로부터 군수품을 신청 받아 일본의 미 제8군 후방사령부에 신청하고 일본의 후방사령부가 공급해 주는 보급품을 수령·보관·지급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6·25전쟁에서 군수지원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또한 부산군수사령부는 대량 피난민 처리, 전쟁포로 수용 및 보급, 그리고 마산, 울산, 포항 및 군산항과 같은 보조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고, 1950년 9월 중순에는 서해안에 있는 제3군수사령부에 대한 감독과 한국의 동해안인 원산에 있는 미 제10군단에 대한 보급임무를 추가로 맡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은 부산군수사령부의 업무 가운데 일부가 카투사에 대한 군수지원과 일본으로의 후송이었다. 이제까지 카투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과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족했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카투사에 대한 초기 지원의 형태를 규명하는 것을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Pusan Logistical Command Activities Report.
- NARA,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Command Reports, 1949~1954, Letter Orders.
- NARA,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Monthly Activities Report.
-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 Numbered Memorandums.
- MacArthur Archives,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FECOM), 1947~1951.
- MacArthur Archives, RG 9, Collection Messages (Radiograms), 1945~1951.

### 2. 저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2013.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中, 下, 국방군사연구소, 1995~97.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 국방군사연구소, 1997.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 이상호,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 체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 임시수도기념관, 『낮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임시수도기념관, 2015.

### 3. 논문

- 김 승,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제29호(2013): 1-33, UCI : G704-SER000000793.2013..29.005.
- 김기준, 「6·25전쟁 분석을 통한 군수지원 발전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윤미, 「한국전쟁기 유엔군 군수사령부 편성과 부산항」, 『동북아문화연구』 제70집(2022): 23-42, DOI : 10.17949/jneac.1.70.202203.002.
- 김종무, 「한국전쟁에서의 작전적 군수지원에 관한 분석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노기영, 「일제말 전시해운과 부산항 관련 자료소개」, 『항도부산』 제21호(2005): 262-303.
- 박동진, 「군수지원의 역사적 고찰 및 발전방향」, 대전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 배석만, 「한국전쟁 전후 부산항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제30호,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2014): 1-35, UCI : G704-SER000000793.2014..30.003.
- 송계의, 「부산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항만개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16호(2000): 144-218.
- 유 현, 「리틀아메리카에서 부산시민공원으로 -캠프 하야리아를 둘러싼 지역과 시선들-」, 『항도부산』 제38호(2019): 162-203, DOI : 10.19169/hd.2019.8.38.161
- 전성현,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화’와 국내외 자료의 현황 및 활용방안」, 『항도부산』 제41호(2021): 1-39, DOI : 10.19169/hd.2021.2.41.1.
-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 Flanagan, William J., Mayfield, Jr, Harry L., “Korean War Logistics, The First One Hundred Days, 25 June to 2 October 1950”, Study Project AD-A157 032, U.S. Army War College Carlisle Barracks, Pennsylvania, 1985.

-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 Blair, Clay,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Times Books, 1987.
- Gough, Terrence J.,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 A Research Approach, The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 Sawyer, Robert K.,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2.

(Abstract)

## Changes in war strategy and the establishment of a logistical support system in the early years of the Korean War

Lee, Sang-Ho

The history of the Pusan Logistical Command provides a clue to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the Battle of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which determined the nature of the early Korean War, and the Operation Chromite that followed. In other words, the transition from the Pusan Base Command to the Pusan Logistical Command is a structural change of the command following a change in operations. Therefore,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operation and role of the Pusan Logistical Command and its overall history.

On July 13, 1950, the unexpectedly rapid advance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crushing defeat in the Daejeon area of the US 24th Division led MacArthur to change tactics. In other words, MacArthur's initial plan of the war, the Operation Blue-hearts, to block the invasion of the South by the North Korean army landing at Inchon using the US 1st Cavalry Division was frustrated. This changed the role of the small Pusan Base Command, which supported the USFK Command, which was mainly composed of the US 24th Division. The Base Command, which had been in charge of command and support until then, was reorganized into the Logistical Command, and the Pusan Base Command was changed to the Pusan Logistical Command.

The Pusan Logistical Command was organized as a B-type Logistical Command. The Pusan Logistical Command was also responsible for handling mass refugees, receiving and supplying prisoners of war, and operating auxiliary ports such as Masan, Ulsan, Pohang, and Gunsan ports. It was

assigned an additional supply mission to the US 10th Corps in Wonsan, on the east coast of Korea.

On September 19, 1950, the Pusan Logistical Command was renamed the 2nd Logistical Command, a C-type logistical unit, as the responsibility for logistics support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combat units.

Keywords : Logistical Support, Pusan Base Command, Pusan Logistical Command, Operation Blue-Hearts, Camp Hialeah, 2nd Logistical Command, 3rd Logistical Command.

